

## 독신가구 : 그 실상은 어떠한가?

박 충 선(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I. 들어가는 말

과거에 토지를 중심으로 하였던 농경사회, 그리고 자본 중심적인 산업사회로부터 점차적으로 정보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사회구조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족」의 개념의 확대 및 융통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
- 가족의 기능의 확대 및 축소에 따른 가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
- 정보화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재구조화
-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변화에 따른 가족이데올로기의 재형성

“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외형적인 의미이상의 다른 잔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결혼이 “바람직한 삶의 상태”라는 가족문화 속에서 “홀로 산다”는 의미는 결혼에 대한 잠정적 보류이건 혹은 직접적 거부이건 간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홀로 사는 가구의 증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일련의 추세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하나의 가족유형으로써의 독신가구를 전반적인 가족복지 정책의 틀 속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 II. 독신가구의 변화

### 1. 인구구조적 변화

- 1인 가구의 비율은 1975년 4.2%에서 1990년 9.0%, 1995년에 12.7%, 그리고 2000년에는 15.5%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 독신가구의 절대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1975년에 28만 가구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 164만 2천 가구, 2000년 222만 4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5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하여 볼 때, 무려 35.4%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1〉 총가구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      | 총일반<br>가구<br>(천가구) |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      |      |      |      |            | 평균<br>가구원수(명) |
|------|--------------------|---------------|------|------|------|------|------------|---------------|
|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이상<br>가구 |               |
| 1975 | 6,648              | 4.2           | 8.3  | 12.3 | 16.1 | 18.3 | 40.7       | 5.0           |
| 1980 | 7,969              | 4.8           | 10.5 | 14.5 | 20.3 | 20.0 | 29.8       | 4.5           |
| 1985 | 9,571              | 6.9           | 12.3 | 16.5 | 25.3 | 19.4 | 19.6       | 4.1           |
| 1990 | 11,355             | 9.0           | 13.8 | 19.1 | 29.5 | 18.8 | 9.8        | 3.7           |
| 1995 | 12,958             | 12.7          | 16.9 | 20.3 | 31.7 | 12.9 | 5.5        | 3.3           |
| 2000 | 14,312             | 15.5          | 19.1 | 20.9 | 31.1 | 10.1 | 3.3        | 3.1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 지역·연령 및 성별에 따른 독신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0대 이전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독신가구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의 독신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고 홀로된 이후 재혼비율이 낮은 점에서도 부분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여성독신가구의 형성 비율은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미혼여성독신가구의 비율은 1990년의 32.2%에서 2000년에는 29.8%로 감소한 반면, 이혼으로 인한 독신가구형성은 1990년의 6.8%에서 2000년에는 9.7%로 증가하였다.

〈표 2〉 지역·연령·성별에 따른 독신가구(1인가구)

단위 : %(명)

| 지역<br>연령 | 전 체                  |                      |                      | 여 자                |                    |                      | 여자비율 |      |      |
|----------|----------------------|----------------------|----------------------|--------------------|--------------------|----------------------|------|------|------|
|          | 1990                 | 1995                 | 2000                 | 1990               | 1995               | 2000                 | 1990 | 1995 | 2000 |
| 전국       | 100.0<br>(1,004,339) | 100.0<br>(1,642,406) | 100.0<br>(2,224,433) | 100.0<br>(589,635) | 100.0<br>(931,524) | 100.0<br>(1,279,437) | 58.7 | 56.7 | 57.5 |
| 15세-     | 3.6                  | 0.1                  | 0.0                  | 3.2                | 0.1                | 0.0                  | 53.0 | 49.5 | 45.1 |
| 15-24    | 13.8                 | 14.4                 | 10.9                 | 12.7               | 13.1               | 10.4                 | 53.9 | 51.7 | 54.7 |
| 25-29    | 20.0                 | 17.1                 | 14.3                 | 10.2               | 8.7                | 9.1                  | 29.8 | 29.0 | 36.6 |
| 30-34    | 9.9                  | 10.6                 | 10.5                 | 6.7                | 6.0                | 6.0                  | 39.5 | 32.4 | 32.9 |
| 35-39    | 5.8                  | 7.6                  | 8.2                  | 5.2                | 6.0                | 5.7                  | 52.6 | 35.1 | 39.9 |
| 40-44    | 4.3                  | 5.4                  | 7.5                  | 3.9                | 4.7                | 6.0                  | 53.2 | 45.0 | 46.1 |
| 45-49    | 4.1                  | 4.6                  | 5.8                  | 3.9                | 4.6                | 5.0                  | 55.3 | 62.8 | 49.8 |
| 50-54    | 5.3                  | 4.8                  | 5.3                  | 6.0                | 5.1                | 5.1                  | 66.5 | 95.8 | 55.5 |
| 55-59    | 7.0                  | 6.4                  | 5.8                  | 9.4                | 8.1                | 6.7                  | 79.1 | 72.5 | 66.6 |
| 60+      | 26.2                 | 29.2                 | 3.8                  | 38.9               | 43.6               | 46.1                 | 87.1 | 84.6 | 83.4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표 3〉 혼인상태별 독신여성가구

단위: %(명)

| 연도   | 계                    | 유배우 | 사별   | 이혼  | 미혼   |
|------|----------------------|-----|------|-----|------|
| 1990 | 100.0<br>(589,635)   | 9.3 | 51.7 | 6.8 | 32.2 |
| 1995 | 100.0<br>(931,524)   | 7.9 | 54.2 | 7.3 | 30.5 |
| 2000 | 100.0<br>(1,279,437) | 7.7 | 52.8 | 9.7 | 29.8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 전반적으로 독신의 증가는 미혼독신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증가율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여성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의 독신여성노인의 비율이 매우 증가하였다.

## 2. 사회구조적 변화

-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변화
- 경제생활의 변화(가족단위에서 개인단위)
- 여성의 사회참여율의 변화: 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미혼/기혼)
- 독신(남성이나 여성)생활에 편리한 주변환경 조성

## 3. 가치관 및 인식의 변화

-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 미혼독신자의 증가 현상을 야기
- 성가치관 및 결혼관의 변화: 결혼의 당위성(부모세대와 자녀세대)
- 가족주의가치관의 변화: 개인 중심적인 가치관이 우세
- 독신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변화: 편리함/프라이버시 유지
- 독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병리적 현상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선택 유형

〈표 4〉 초혼연령의 변화

| 연도 | 1930-40 | 196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
| 남성 | 21.3    | 25.6 | 26.8 | 26.5 | 27.0 | 27.9 | 28.4 | 29.3 |
| 여성 | 15.0    | 16.8 | 22.8 | 23.2 | 24.1 | 24.9 | 25.4 | 26.5 |

자료 :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2001

## Ⅲ. 독신의 유형 및 특성

### 1. 독신의 유형

- 법적 혼인여부: 미혼독신, 이혼독신, 사별독신
- 독신의 지속성: 잠정적(일시적) 독신과 안정적(영구적) 독신
- 독신의 자발성: 자발적 독신과 비자발적 독신

### 2. 독신의 특성

- 결혼에 대한 자녀세대의 가치관의 변화와 자녀가 원하는 것을 가능한 한 다 해주려고 하는 신중년세대 부모의 가치관이 서로 맞물려서, 젊은 층의 독신은 부모를 포함한 주변의 지지를 받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하고 경제력이 높은 전문직 및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신독신층(neo-single)의 증가는 독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추세이다.
- 경제적 자립도, 사회/심리적 독립성, 그리고 독신에 대한 수용도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영구적 독신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에서 독신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독신자들의 실태는 이러한 3조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수집

- 연구자(6명)들이 snowball 방식으로 독신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료 수집
- 조사대상자의 편중을 막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총 164 사례를 선정함.
- 조사대상자는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성과 여성이며, 자신이 스스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공간적으로도 독립적인 생활)로써 미혼이거나 결혼경험(이혼 혹은 사별)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되었다.

##### 2. 본 조사의 성격

- 독신에 관한 기초조사로써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앞으로 보다 다양한 독신집단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독신가구에 대한 복지 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성별
  - 남성이 49.4%, 여성이 50.6%---남녀의 비율이 비슷함.
- 연령
  - 평균연령은 35.02세이다 (남성은 33.2세, 여성은 36.8세)
  - 전체 응답자의 58.5%가 35세 미만으로 나타나서, 비교적 젊은 독신층이 많이 포함되었다.

○ 학력

- 전체 응답자의 92.1%가 대학교 졸업이상의 고학력층(대학졸업이 61.0%, 대학원 졸업이 31.1%)
-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의 집단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학력이 더욱 높게 나타나서, 독신 여성의 학력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 결혼여부

- 압도적으로 미혼독신(92.1%)이 많았다. 그밖에 사별(1.8%)과 이혼(6.1%)으로 나타났다.

○ 종교

- 전체 응답자의 50.6%가 “종교가 없다”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개신교-카톨릭-불교-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직업

- 전문직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무직, 기술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의 전문직 종사 비율(39.8%)이 남성(19.8%)의 2배가 넘었으며, 이는 전국 통계치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 그밖에 기술직에는 남성이, 그리고 자영업은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소득

- 월평균소득은 150만원-200만원 미만인 2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21.3%), 100만원-150만원 미만(19.5%), 200만원-250만원 미만(12.8%), 그리고 250만원 이상도 15.9%로 나타났다.
- 남성과 여성의 소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고소득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64)

|      | 변 수       | 빈 도 | %    |
|------|-----------|-----|------|
| 성 별  | 남         | 81  | 49.4 |
|      | 여         | 83  | 50.6 |
| 연 령  | 30-34     | 96  | 58.5 |
|      | 35-39     | 30  | 18.3 |
|      | 40-44     | 30  | 18.3 |
|      | 45세 이상    | 8   | 4.9  |
| 학 력  | 고졸이하      | 13  | 7.9  |
|      | 대졸        | 100 | 61.0 |
|      | 대학원이상     | 51  | 31.1 |
| 결혼여부 | 미혼        | 151 | 92.1 |
|      | 사별        | 3   | 1.8  |
|      | 이혼        | 10  | 6.1  |
| 종 교  | 없다        | 83  | 50.6 |
|      | 개신교       | 42  | 25.6 |
|      | 불교        | 9   | 5.5  |
|      | 카톨릭       | 26  | 15.9 |
|      | 기타        | 4   | 2.4  |
| 직 업  | 전문직/관리직   | 51  | 31.1 |
|      | 사무직       | 43  | 26.2 |
|      | 자영업       | 8   | 4.9  |
|      | 기술직       | 14  | 8.5  |
|      | 판매·서비스직   | 11  | 6.7  |
|      | 무직        | 13  | 7.9  |
|      | 기타        | 24  | 14.6 |
| 소 득  | 100만원 미만  | 35  | 21.5 |
|      | 100-150만원 | 32  | 19.6 |
|      | 150-200만원 | 49  | 30.1 |
|      | 200-250만원 | 21  | 12.9 |
|      | 250-300만원 | 16  | 9.8  |
|      | 300만원 이상  | 10  | 6.1  |

## 2. 독신으로 지내는 이유

- 독신으로 지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54.3%로 나타났다. 이는 곧 조사대상자의 상당 비율이 미혼독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여성(51.8%) 보다 남성(57.0%)이 더 높게 나타났다.
- 다음으로 학업이나 일(직업)에 몰두하느라고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응답이 21.0%로 나타났다. 성차이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그밖에 결혼의 중압감/책임감(7.4%), 독신주의자이므로(4.9%)로 나타났다.

〈표 6〉 독신생활의 이유

| 독신이유              | 빈 도 | %    |
|-------------------|-----|------|
|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 88  | 54.3 |
| 학업이나 일(직업)에 몰두하여서 | 34  | 21.0 |
| 결혼의 중압감/책임감 때문에   | 12  | 7.4  |
| 기타                | 9   | 5.6  |
| 독신주의자이므로          | 8   | 4.9  |
| 이성/결혼에 대한 불신으로    | 5   | 3.1  |
| 사회환경이 독신에 편리해져서   | 4   | 2.5  |
| 가족부양으로 혼기를 놓쳐서    | 2   | 1.2  |

## 3. 결혼에 대한 계획

- 결혼에 대한 계획은 “언젠가 반드시 한다”는 응답이 18.3%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응답이 더 높았다.(남성: 32.5%, 여성: 4.8%)
- “적당한 대상이 나타난다면 한다”는 응답이 68.9%를 차지하여서, 결혼에 대한 잠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태도가 더욱 유동적이였다.
-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남성: 7.5%, 여성:15.7%).



〈표 7〉 앞으로의 결혼계획

| 결혼계획            | 빈 도 | %    |
|-----------------|-----|------|
| 전혀 없다           | 19  | 11.7 |
|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면 한다 | 113 | 69.3 |
| 언젠가 반드시 한다      | 30  | 18.4 |

#### 4. 독신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전반적으로 독신생활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은 49.4%로 나타났는데, 여성(61.4%)이 남성(37.1%)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 따라서 독신생활에 불만이라는 응답은 12.2%(남성:17.3%, 여성:7.2%)으로 나타나서 여성보다 남성의 불만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따라 독신생활만족도에는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관리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독신생활만족도가 높았고, 기술/판매/서버서비스직이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생활의 융통성이나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독신의 편익이 더욱 증가된다고 하겠다.

〈표 8〉 현재 독신생활의 만족도

| 독신생활 만족도 | 빈 도 | %    |
|----------|-----|------|
| 매우 만족한다  | 8   | 4.9  |
| 만족한다     | 73  | 44.5 |
| 보통이다     | 63  | 38.4 |
| 불만이다     | 13  | 7.9  |
| 매우 불만이다  | 7   | 4.3  |

#### 5. 독신생활에 대한 태도

- 생활의 자유로움
  - 독신생활의 좋은 점으로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유로움'을 지적하였다. 독신의 특권인 자유추구는 '편의주의'와 '인생을 즐긴다'라는 최근의 사회분위기에 부응되는 삶의 형태로 부각되고 있다.
- 제도적 압박감

- 결혼제도가 자아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은 응답자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88.4%)고 하였으나, 성별에 따라서 보면, 여성은 81.9%, 남성은 95.1%로 응답을 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지적하는 ‘his marriage and her marriage’의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 결혼에 대한 주변의 압력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신남성은 결혼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압력을 느끼지만, 독신여성은 “결혼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독신의 자연스러운 생활이 이어지게 되면 독신으로 남고 결혼하게 되면 할 수도 있다는 유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주변의 압력에 대한 인지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 전반적으로 독신은 여성에게는 결혼제도로 인한 비용효과를 감소시키고,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남성은 오히려 독신의 비용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독신의 비용 내지 편익효과의 차이는 다른 항목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독신이면서도 이성친구에 대한 바람이 큰 쪽은 남성이며,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하는 비율도 남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 주변 지원체계의 불안감
-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므로 독신생활의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았다.
- 미성숙함
- 남성보다 여성은 미혼으로 인하여 성인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험이 더 많았다. 이는 여성을 타인의존적, 종속적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사회인식에 기인한다고 본다.
- 일과 직장에 대한 몰두 가능성/자기개발의 기회 증대
- 여성은 독신으로 인하여 자신의 일과 자기개발에 몰두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갖게 되는 반면, 남성은 독신으로 인한 이러한 편익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여성에게는 자생력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제공
- 독신과 효의식
- “독신은 불효”라는 인식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이 전통적인 혈연위주의 가족주의 가치관 개념을 지님으로써, 가문이나 혈통을

있는 기능을 가진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 나이가 들수록 독신을 부모에 대한 불효행동으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개인적인 주관이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독신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자의식이 자신의 독신생활과 효행 위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 결혼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편익효과가 더욱 크다. 따라서 독신여성보다 독신남성의 경우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며, 독신생활의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있다고 본다.

〈표 9〉 독신생활의 실상 : 장점과 단점

빈도(%)

| 문항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결정을 할 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서 좋다.    | 25(15.4) | 105(64.8) | 31(19.1)  | 1( 0.6)   |
| 가족에 대한 부양감이나 책임감이 없어서 좋다.     | 24(14.6) | 82(50.0)  | 47(28.7)  | 11( 6.7)  |
| 가고 싶은 곳은 언제 어디로든지 갈 수 있어서 좋다. | 36(22.0) | 97(59.1)  | 28(17.1)  | 3( 1.8)   |
| 나만의 공간의 있어서 좋다.               | 50(30.7) | 94(57.7)  | 14( 8.6)  | 5( 3.1)   |
| 내가 하는 일과 직장에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    | 49(29.9) | 94(57.3)  | 18(11.0)  | 3( 1.8)   |
| 여가/취미활동을 통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다. | 37(22.6) | 92(56.1)  | 30(18.3)  | 5( 3.0)   |
| 생활의 변화나 융통성이 많아서 좋다.          | 27(16.5) | 99(60.4)  | 34(20.7)  | 4( 2.4)   |
| 부모님이나 주위사람의 결혼하라는 압력이 힘들다.    | 21(12.8) | 44(26.8)  | 76(46.3)  | 23(14.0)  |
| 몸이 아프거나 위급시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 24(14.6) | 55(33.5)  | 71(43.3)  | 14( 8.5)  |
| 현재 경제적인 불안감이 있다.              | 11( 6.7) | 43(26.2)  | 88(53.7)  | 22(13.4)  |
|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 10( 6.2) | 59(36.4)  | 76(46.9)  | 17(10.5)  |
| 명절이나 휴일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다.    | 16( 9.8) | 24(14.7)  | 90(55.2)  | 33(20.2)  |
| 사회에서 성인(어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 | 9( 5.5)  | 22(13.4)  | 90(54.9)  | 43(26.2)  |
| 독신여성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간 것이다.      | 3( 1.9)  | 11( 6.9)  | 103(64.8) | 42(26.4)  |
| 독신남성은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6( 3.8)  | 47(29.9)  | 86(54.8)  | 18(11.5)  |
| 독신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행동이다            | 10( 6.1) | 65(39.6)  | 75(45.7)  | 14( 8.5)  |
| 우리사회에서는 독신여성보다 독신남성을 더 수용한다.  | 10( 6.1) | 58(35.4)  | 85(51.8)  | 11( 6.7)  |

〈표 10〉 성별에 따른 독신생활 태도

|           | 남성 M(SD)    | 여성 M(SD)    |
|-----------|-------------|-------------|
| 생활의 자유로움  | 17.76(3.08) | 18.52(2.85) |
| 제도적 압박감   | 9.85(1.56)  | 9.50(2.00)  |
| 지원체계의 불안감 | 6.98(1.48)  | 7.38(1.94)  |
| 미성숙함      | 1.81(0.67)  | 2.14(0.86)  |

## 6. 나가는 말

- 독신이 반드시 바람직한 삶의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혼 또한 단지 우리사회의 오래된 하나의 제도일 뿐,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도 없다.
- 다양성이 강조되는 정보화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총체적 변화가 요구된다.
-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간에 독신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독신자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성·연령·교육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욕구가 존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지원 요구된다.
- 누구나 인생주기의 한 시점에서는 독신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 특정집단이나 특정 연령에 편중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복지의 보편적 논리 속에서 독신에 대한 복지프로그램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김애순(1994), *독신, 그 무한한 자유*, 서울:고려원미디어.
- 노창숙(1997), *독신이 아니라 독립이다*, 서울:새얏.
- 변화순 외 2인(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윤영효(1994), *시집안 간 여자? 시집못간 여자*, 서울:삼진기획.
- 이미영(1994), "독신이 대안은 아니다", *사회평론*, 길, (2월).
- 주간조선(2002), "나홀로가 좋다": 싱글가구 200만 돌파.
- 통계청(200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_\_\_\_\_, *인구통계연보*.
- Anderson, C. & S. Stewart(1994), *Flying Solo: Woman in Midlife*, N.Y.: Norton Co.
- Cockrum, J & P. White(1985), "Influences on the Life Satisfactin of Never-married Men and Women", *Family relations*, 34(October).
- Gubrium, J.F.(1975), "Being single I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1).
- Scott, J.P.(1979), "single rural elders: A comparison of dimentions of life satisfaction" *Alternative Lifestyles* 2(August).
- Spteitzer,R. & L. Riley(1974), "Factors associated with single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August).